

“한-미 FTA 위해 최고기 조기 해결”

인수위, 외교부 업무보고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해 조기 해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보고 11일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도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3.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정국으로 비준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를로스 쿠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결요건은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이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쿠티에레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일라드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과 한국경제연구소(KEI)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면서 “의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활기 띤다

개항 2개월만에 국제선 늘고 편의 시설도 확충 정기노선 주 11회...비정기노선도 주 21편 운항

지난해 11월 8일 개항 당시 1개에 불과했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노선이 개항 2개월 만에 3개로 늘고 전세기들도 정기노선을 추진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국제선을 운항하는 노선은 상하이 주 7회, 대만 주 2회, 마카오 주 2회 등 주 11회가 운항되고 있으며 비정기 노선도 사면(廈門) 주 2회, 후쿠오카 주 2회, 마닐라 주 2회, 방콕 주 2회, 마카오 주 2회 등 총 21편에 이르

고 있다. 은행, 로밍센터, 면세점, 편의점 등 승객 편의시설도 크게 보충돼 승객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

전남도는 또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에 무안~제주노선 취항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2004년 5월 중단된 목포~제주간 항공편 탑승률이 85%가 넘는 점을 보아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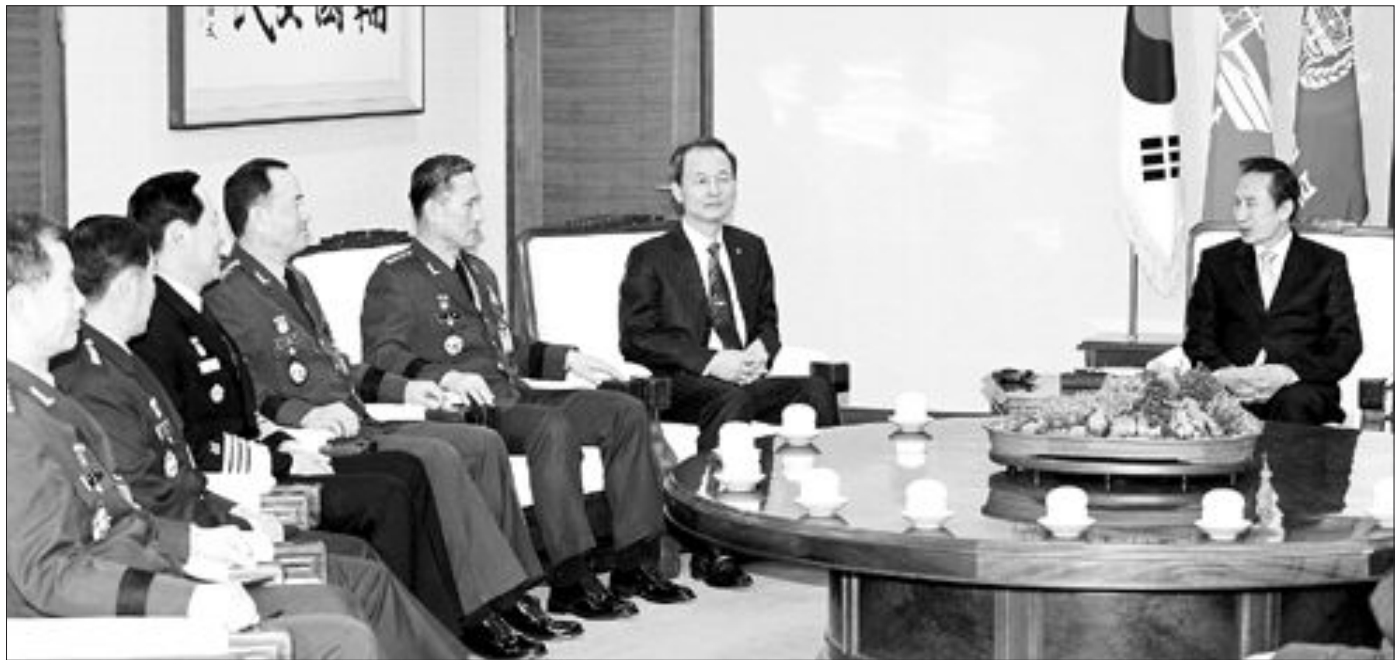
여기에 최근 공포·발효된 ‘전라남도 무안

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의 취항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공항이 세계 모든 항공사에 취항을 허용하는 자유공항으로 지정된데다, 새정부에서도 ‘동북아 항공물류 중계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고 공약하고 있어 정상개도 진입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청주공항이 승객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무안국제공항은 2010년까지 3년 만에 승객 100만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당선인 신분 첫 국방부 방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11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군 수뇌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역대 당선인들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로 국방부 방문을 삼갔으나 이 당선인은 한미연합사 방문에 앞서 국방부를 먼저 들러야 한다는 청와대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11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군 수뇌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역대 당선인들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로 국방부 방문을 삼갔으나 이 당선인은 한미연합사 방문에 앞서 국방부를 먼저 들러야 한다는 청와대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시설

‘광주·전남 방문의 해’ 관광산업 도약 기회로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광주·전남 방문의 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08 광주·전남 관광 유치에 나섰다. 시·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3천314만여명을 유치, 광주·전남을 동북아 관광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 관광산업은 그동안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불구하고 크게 낙후된 게 사실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열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인프라마저 부족해 관광객 유치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고흥우주센터 발사, 순천전국체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굵직한 행사가 열리는 해여서 광주·

전남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문제는 숙박시설과 관광·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느냐는 점이다. 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그저 먹고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즐기는 광주·전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다. 외지 방문객이 다시 찾게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친절이다. 친절이 가장 좋은 관광자원인 것이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이다. 우리 지역의 주요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올해를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는 관광원년이 되도록 지자체, 시·도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학규 체제 통합신당 쇄신이 살 길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새 대표에 취임했다. 손 대표는 취임사에서 낯은 시대정신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변화와 쇄신을 향한 길을 열어야 할 것을 다짐했다.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손 대표 체제의 앞날은 잡접산중이다. 통합신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청산론과 계파간 갈등 등 극심한 내용을 앓고 있다. 친노세력의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이 전격 탈당한 것이 단적인 예다. 손 대표는 각 계파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이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손 대표에 대한 당내 ‘비토세력’은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이회창씨가 주도하는 자유신당 등 주요 정당의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통합신당은 기존의 인물로는 총

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손 대표를 ‘구원투수’로 선택했지만 당의 노선에 보수색채가 강화될 경우 정체성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9총선’이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계산에 분주하다. 일부 친노세력과 총정권 의원 등의 탈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변화와 쇄신을 내건 손 대표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파장을 최소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통합신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계파간 반목과 갈등이 확산되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변화와 공천혁명으로 총선에서 ‘이명박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합신당이 손 대표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새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미국발 악재’ 코스피지수 1800선 무너져

코스피지수가 미국발 악재로 1,800선 아래로 급락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이를 깨 하락해 전날보다 42.51포인트(2.33%) 내린 1,782.27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도 14.12포인트(1.98%) 내린 699.24에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이날 지수는 외국인 매도세와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인해 악재로 돌아섰다가 메릴린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각

규모가 1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급락세를 연출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 1천 32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또 현·선물 간 가격차를 나타내는 베이스가 전날 1.43에서 1.04로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물이 2천40억원이나 쏟아져 나온 것도 이날 지수 급락의 주 요인이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부 개편안 15일째 발표

14부 2차 유력...통·폐합 부처 강력 반발 '진통'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15일 전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부4처인 중앙 정부 조직을 14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13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통폐합 대상 부처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개편안 확정 후 여야 원내정당들에 대한 설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확정안 발표 시점은 기자회견이 예정된 1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1일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13일 발표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특히 “이 당선인께서 지난 반국회 원내 정당 대표들을 만났을 때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발표 전) 국회와 조율하는 스태프(단체)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발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총리 인선과

정부조직 개편을 동시에 발표할지 아니면 그냥 기자회견만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행 18부 중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와 4차 가운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타부처로 흡수통합시켜 ‘14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개편 예상되는 14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이하 가칭,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이와 함께 있는 청와대는 현행 ‘3실8수석’이 ‘1실7수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물가안정, 최우선 목표”

범정부대책반 구성·운영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이 참석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유가 및 국제금융 동

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고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물가의 관리 위해 범정부적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각 부처들이 참가하는 물가안정대책반을 만들어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물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6%나 올라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0월 이후 크게 오르고 있고 새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서민생활에 부담을 드리우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안만 봐도 입이 더 하수구일세

“재창당 각오로 인재 대거 영입”

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취임식 밝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전문성과 능력,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며 “외부의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당선동 당사에서 열린 대표이·취임식에서 “신망 있는 외부인사로 독립적인 공천심사위원을 구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추진하겠다”면서 “재창당하는 각오로 외부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대거 영입해 당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대 대선 등 잇단 선거 참패에 대해 “단순히 선거 운동을 잘못했거나 선거 전략을 제대로 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21세기에 맞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중도적 가치와 실용적 정신이 반영되는 진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 인간존중의 시장경제, 과학적 진보주의를 내걸었다.

그는 향후 대외(對外) 관계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신당은 우리 정당에서 가장 협력적인 야당이 동시에 가장 단호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업은 단호히 저지하고 생명과 자원을 훼손하는 한반도 대운하 같은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차기 주한 미 대사에 ‘지하파’ 스티븐스 내정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선임 고문이 여성 최초로 차기 주한 미대사에 내정됐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0일 밝혔다.

정통 직업외교관인 스티븐스 고문은 1978년 국무부에 들었던 뒤 주한 미국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등에서 근무해 한국 상황에 정통한 스펙터는 지하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스티븐스 고문은 1975~77년 충남 부여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일찌감치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3년부터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처관보로 코소보 사태 후속 처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스티븐스는 힐 동아태 차관보의 추천에 따라 동아태 수석부처관보로 자리를 옮긴 뒤, 북한과 한국, 일본 관계 업무 전반을 맡아왔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